



정순신 아들 학폭의 심각성과 특권 패거리 카르텔

김 운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2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한국방송'(KBS)이 2017년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아들 정씨(22세)의 학교 폭력(학폭)을 보도하여 국민적인 공분(公憤)이 일어나자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되었다. 국민적 충격사건이다.

연론 보도에 의하면, 1995년 개교하여 최초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2017년 3월, 정 변호사 아들 정씨는 강원도 소재 자사고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제주도에 올라온 동급생을 2019년 2월 전학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했다.

법원 판결문, 민사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원회)와 황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결정문 등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씨는 동료학생 7씨를 괴롭힌 이유로 피해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단지 제주도에 왔다는 이유로 기숙사 방이나 식당 등에서 처음부터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새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더러우니까 꺼져라"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라는 등 건대기 어려운 온갖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2018년 3월에 학폭위원회에서 강제전학 결정이 나오자, 정씨는 시험기간을 핑계로 사회봉사조차 마루며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 "우리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직업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 2018년 9월에는 피해학생을 내쫓은 동아리의 구성원들과 상을 타 언론에도 나왔다. 피해학생은 이런 가해학생과 기숙학교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피해학생의 고통장에 증세는 한층 심각해졌다.

피해학생은 학폭위원회에서 "그렇게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개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가 거꾸로 치솟을 일이다.

회의록에서 교사는 정씨에 대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다.

정 변호사는 민사고의 강제전학 처분에 맞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등을 해서 2019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전학을 지연시켰다. 2018년 6월 전학처분 이후에도 8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조사와 책임을 가려야 할 중대한 위법이다. 서울대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에 의한 감점이 제대로 되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 변호사 부부는 A4 용지 3분의 1 정도의 진정성 없는 가해학생의 진술서(반성문)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코치해서 고쳐서 보내고, 판결문에 기재된 회의록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나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법기술을 이용한 책임 회피와 교묘한 꾀(詭辯)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를 가했다.

2020년 민족사관고 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학폭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막는 '제2의 정순신'과 같은 파렴치한 부모들이 민사고 학부모 중에 더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2020년 2월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으나,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두 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학생은 병원을 다니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도 시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피눈물을 흘린 것은 물론 기나긴 소송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국방송'(KBS)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크게 보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장은 연수원 동기로서 제3차장 검사였다. 이 사건으로 정 변호사는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었다. 3만 수사경찰을 지휘할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것 부러가 예시당초 잘못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역대급 인사 참사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도 잘못도 없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 보니, 패거리 카르텔에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다. 가정폭력과 학교 폭력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혹한 행위다. 국가는 한 인간의 꿈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킨 엄청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겨울 막바지, 봄맞이 전 화재안전 주의 당부

강주용 장흥소방서장흥119안전센터장

겨울 날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적으로 주의하며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봄철의 포근한 날씨가 오면서 느슨해진 안전의식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기상학적으로 봄은 사계절 중 습도가 가장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꽃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봄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실내에서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제품은 KS제품 또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합선과 단락을 방지한다.

장기외출 시 전기기구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며, 가스밸브를 잠그고,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 대비를 위해 K급 소화기(식용유화재 전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주변의 시설배치, 소화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해야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할 때는 삼발이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며, 모닥불은 화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닥불은 사용 후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등산을 할 때는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절대로 흡연과 불법 취사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산과 가까운 눈·밭은 쓰레기 등 소각활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산은 작은 불씨가 전화원 역할을 하고 가연물이 천지에 널려 있어 바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기 전 화재 시 대피계획과 대응방안을 의논해보며, 여러 가지 화재유형을 고려해 대피요령과 소화 방법도 익혀 보기 바란다.

봄이 다가오기 전에 부주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 실천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안전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기고

새학기 학교폭력 이제 그만!

기고

부모가 제2의 가해자는 되지 말아주세요

김경진 강진경찰서경위



코끝이 시린 겨울이 지나고 새싹들이 한껏 가지개를 펴는 봄이 다가오면 학교는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들뜬 마음으로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학년이 올라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 등 새학기 학교는 어수선하다.

설렘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반면, 학교 가기가 두려운 아이도 있을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늘 '학교폭력'이 문제되고, 국가에서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하지만 경찰 등 국가기관의 활동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 최근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가 밝혀져 자진사퇴한 사례, 유명 스포츠 스타가 학교폭력 문제로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볼 때면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 예방의 주체는 이제 국가만이 아닌 가정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현재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부모가 제2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자!

오승식 보성경찰서공공안녕정보경비계경사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요즘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는 때'라는 뜻으로 겨울 동안 땅속에 얼음상태로 있던 수분이 녹으면서 부피 차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거나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대표적인 해빙기 안전사고 유형으로 지반 약화로 인한 축대나 옹벽 붕괴가 있다. 주택이나 건물 주변 땅에 균열 또는 지반침하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비탈면·절개지에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화재 또한 해빙기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 유형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발간하는 '전기화재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빙기에 발생한 전기화재는 총 3771건으로 전체 전기화재의 약 15%를 차지한다.

겨울철 지표면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커진 토양이 해빙기를 맞아 가라앉으면서 건물 배전설비가 손상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처럼 발생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취약요소 점검과 위험징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안)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